

특별기고

정년퇴임 교원(윤창열)의 학술 및 봉사 업적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실 교수
김용진*

Achievements of a Retiring Faculty, Yoon Chang Yeol

Objectives : This paper aims to document the journal's history by researching academic achievements of a retiring faculty member and his contribution to the academy.

Methods : To expand the boundaries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ology within the Colleges of Korean Medicine, the methodology for taking oral history was followed in investigating the faculty member's scholarly and academic achievements,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of the academy's history for years to come.

Results : Yoon taught subjects such as Medical Chinese, Medical Classics, Classical Chinese, Reading Classical Texts, Medical Philosophy, Medical I-Ching at the University, while vigorously studying basic Korean Medical fields such as the *Huangdineijing* and the Five Circuits and Six Qi Theory. He also pushed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implemented the overseas studying program for students and faculty. At the academy, he stabilized the organization's finances, strengthened the journal's status, and built the foundation for the standardization of Medical Classics education by publishing a common textbook.

Conclusions : Yoon's various achievements were made possible by other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hich was in reciprocation to Yoon's effort to bring the members together to form cooperative relationships.

Key words : retiring faculty, academic achievements, service to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oral history, standardization of Medical Classic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 Kim Yong-jin.

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Tel: +82-42-280-2626. E-mail: omdkyj75@gmail.com

저자들은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 상충도 없습니다.

Received(January 21, 2023), Revised(February 8, 2023), Accepted(February 10, 2023)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국내에서 구술사 관련 연구는 한국구술사학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의료분야에서도 구술사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신규환은 최근 한국의학사 연구에서 구술사 연구의 성과와 한계에서 “연세대 의사와 학과 및 의학사연구소에서는 1997년 6월 『연세의사학』의 창간 이래로 원로 의사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연세의사학』 11-2(2008년 12월호)와 12-2(2009년 12월호)에는 각각 조산사 특집호와 산부인과 의사 특집호를 게재하고 있고, 그 안에 구술내용과 관련하여 출산 연구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대 의대에서는 구술을 활용하여 『한국의학인물사』를 출간하였고, 구술을 바탕으로 신경외과 심보성 교수의 개인 평전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의학 분야에서는 한의학을 재구성하기 위해 구술을 간접적으로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아직 구술사를 연구 성과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박경용의 『한국 전통 의료의 민속지 I: 원로 한약업사의 삶과 약업 생활 문화』와 원보영의 『민간의 질병인식과 치료행위에 관한 의료민속학적 연구』를 들 수 있다. 의료인류학자인 김태우는 장기간의 현지조사와 구술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특징을 구분해내고, 의학전통이 전승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의료민속학자인 원보영은 현지조사와 구술에 바탕하여 조선 후기 이래 민간의료의 다양한 존재방식을 검토하였다”¹⁾라고 하여 한국의학사에서 구술사관련 연구 현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외에 황임경, 김호연은 구술사와 서사의학의 만남, 그 시론적 탐색²⁾에서 구술사와 서사의학이 인식론적 간극이나 차이점도 있지만 치유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에 서로의 성과를 융합하여 개인과 사회 모두의 ‘안녕(wellbeing)’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모색하여야 한다고 하여, 구술사와 서사의학의 접점에

대하여 유사점으로는 이야기를 매개로 구술성과 서사성에 주목한다는 점이고, 차이점으로는 구술사는 역사적 진실규명을 목적으로 인체에 대하여는 부차적인 사항이지만 서사의학에서는 육체적질병과 심리적 상처를 치유할 목적으로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한의학 관련 구술채록으로 한약업사나 침구사 등을 대상으로 구술채록하여 『구술생애사를 통해본 韓藥業士의 한약 입문과 전승방식』³⁾, 『귀순 침술인 박정규의 생애와 침구제도』⁴⁾ 등을 연구하고, 『전통의료 구술자료 집성1』⁵⁾이라는 서적을 출판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한방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구술 연구이고, 한의사를 대상으로 구술사를 채록한 연구로 박경용은 『원로 한의사의 한의학 입문과 지식, 기술의 전승』⁶⁾이라는 연구로 전통의료문화의 총체적 이해를 위한 각론 차원에서 원로 한의사들의 한의학 입문과 관련 지식 및 기능의 습득방식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대구지역 원로 한의사들(윤관경, 신성호, 신성균, 조경제, 김천호, 장영상, 서남수, 서정학, 변정환)을 면담한 것이 유일하다.

이렇듯 한의학계에서는 구술채록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가 미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새로운 역사쓰기의 일환으로 구술 채록을 통한 현대 한의학의 역사를 수집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의학계에서 구술사를 활용하는 것은 한의과대학에서의 인문사회학의 범주를 폭넓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윤창열교수의 정년퇴임을 맞이하여 윤창열교수의 학술업적 및 학회에서의 업적을 기존의 자료와 관련 교수들의 연구제보를 통하여 정리하고자

1) 신규환, 최근 한국의학사 연구에서 구술사 연구의 성과와 한계, 대한의사학회, 의과학, 제22권 제2호(통권 44호), 2013, pp. 422-423.
2) 황임경, 김호연, 구술사와 서사의학의 만남, 그 시론적 탐색, 대한의사학회, 의과학, 제22권 제2호(통권 제44호), 2013년, p.382, pp.371-374.

3) 박경용, 구술생애사를 통해본 韓藥業士의 한약 입문과 전승방식, 부경역사연구소, 지역과 역사, vol 19, 2006.
4) 박경용, 귀순 침술인 박정규의 생애와 침구제도 : 회고록과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남북문화예술학회, 남북문화예술연구, 2009년 4호.
5) 박경용, 전통의료 구술자료 집성 1 -대구약령시 원로 한의약업인 6인의 의약업과 삶-, 파주, 경인문화사, 2011.
6) 박경용, 원로 한의사의 한의학 입문과 지식, 기술의 전승 - 구술 생애사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vol 34, 2007, pp.5-8.

한다. 본 연구는 비록 구술 채록의 방법이 아니지만 구술사의 연구방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II. 본론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한한의학원전학회 학회사 수집을 목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개인 생애사를 연구하기에는 격동기 현대 한의학의 수난과 극복과정, 한의학의 발전과정 등 한의사로서의 삶과 학교 교수 및 학회 회원으로서의 업적 등 모두 이야기하기에는 호변하게 되기 때문에, 교수로서의 업적 및 학회사 수집이라는 부분으로 한정지어 연구하기로 하였다.

연구 대상은 대한한의학원전학회의 회원으로 대학에 재직할 경험이 있고, 학회 회무를 집행한 경험이 있는 학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가능하면 학장과 학회장을 두루 경험하여, 학교와 학회에서 수행한 업적을 위주로 연구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본 연구에서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윤창열 교수를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사전 조사 및 연구 대상자인 윤창열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구술 면담을 하지 않고 자문을 받은 이유는 연구 대상자의 구술면담 거절로 인하여, 구술사의 연구 방식을 준용하되, 연구 대상자의 자문인 서면 답변과 기타 자료조사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자문을 받기 위해 사용된 질문지는 한의학(원전사학)을 전공하게 된 동기, 연구업적, 학장 학회장으로서의 업적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면담 대상자가 꼭 이야기 하고 싶은 항목을 추가하였다.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질문지를 연구 대상자에게 전달하여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자문 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상세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대학교 강정수 교수와 오재근 교수를 연구제보자로 선정하였다. 강정수 교수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연구 대상자의 학장시절에 한의학과장의 보직을 수행하였고, 오재근 교수는 대전대학교에서 연구 대상자에게 학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한한의학원전학회에서

총무이사 등을 역임하여 연구 대상자의 업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자문 내용은 연구 대상자와 연구제보자들의 동의 를 구한 정리하고, 편집의 과정을 거쳐 윤창열교수의 학술 및 학회봉사 업적으로 발전시켰다.

2. 구술사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술사의 방법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구술사에서의 연구방법을 준용하였으므로, 먼저 구술사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정리한다. 위키백과에서 구술사에 대하여 “원시 사회는 역사 기록물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구전에 오랫동안 의존해 왔다. 서구 사회의 구전 역사는 초기 그리스 역사가들인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가 목격자들로부터 다양한 구전을 광대한 범위로 수집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구술 역사의 현대적인 개념은 1940년대 당시 컬럼비아 대학의 알란 네빈스와 그의 동료들이 처음 도입하였다.”⁷⁾라고 하여 알란 네빈스(Allan Nevins)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영국에서는 1973년에 톰슨(Paul Thompson)을 중심으로 ‘Oral History Society’라는 구술사 연구학회가 결성돼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학회의 결성을 주도한 톰슨의 ‘과거의 목소리(The Voice of the Past)’는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을 포함해 이제까지의 구술사 연구를 집대성한 고전적 저작으로 평가된다⁸⁾.

윤택림과 함한희는 『새로운 역사 쓰기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⁹⁾에서 구술사의 여러가지 정의를 모아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구술사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구술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들이 있다. 벨기에 구술사가이며 역사학자인 반시나(Jan Vansina)는 아프리카의 구전을 연구하면서 구

7)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5%AC%EC%88%A0_%EC%97%AD%EC%82%AC
8) 교수신문(2005년 3월 28일자)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7350>
9) 윤택림, 함한희, 새로운 역사 쓰기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2006. pp. 46-50.

전(oral tradition)을 여러 세대에 걸쳐 구두로 전해오는 구술 증언(oral testimony)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반시나가 구술 자료(oral sources)라고 간주한 목격자의 증언을 제외하게 된다. 대부분의 구술사가들은 과거에 대한 목격자의 증언을 포함해서 구술사(oral history)라고 하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구술 자료를 구전이라고 부른다.

미국 구술사가인 스타 (Louis Starr)는 “이제까지 이용되지 않았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구술을 기록함으로써 생기는 1차적 자료”라고 정의를 내렸다. 또 한 사람의 미국 구술사가인 리체(Donald Ritchie)에 의하면 “구술사는 기록된 인터뷰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술된 기억과 개인적 논평들을 수집하는 것”이라고 한다. 두 미국 구술사가의 개념 정의를 보면 미국의 구술사는 구술을 기록하고 수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미국의 구술사 발전의 역사적 맥락과 같이 기록관리사(archivist) 중심의 개념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구술사가인 톰슨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과거의 목소리(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 Oxford, 2000)』에서 구술사가 피지배층의 구술 자료를 통해서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쓰는 작업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개념은 영국의 사회사적 전통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구술의 기록과 수집보다는 구술사의 정치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톰슨보다 더 급진적인 영국의 대중기억연구회(Popular Memory Group)는 구술사를 “과거에 대한 개인적 기억들의 환기와 기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톰슨보다는 다소 기계적인 정의라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이 연구회가 구술사를 이해하고 다루는 방식은 톰슨의 경험주의를 넘어서서 정치적 급진성을 띠고 있다.

반면 유명한 이탈리아 구술사가인 폴텔리(Portelli, Alessandro)는 “구술사는 특정한 형태의 담론, 즉 구술을 표현의 매개로 하는 과거에 대한 서술”이라고 본다. 그는 구술 자료가

아니라 구술 자료를 다루는 역사가의 존재를 강조하면서 구술사를 애매모호한 성격을 가진 대화적 담론으로 정의한다.

한국에서 구술사의 개념은 단순히 구술 자료를 채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지평을 넓히는 밑으로부터의 역사로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역사인류학자인 윤택림은 구술 자료를 구술사는 과거의 경험을 기억을 통해서 현재로 불러와서 구술자와 역사가가 대화를 통해 쓴 역사라고 정의한다.

역사인류학자인 함한희는 구술사를 기현을 통한 과거에 대한 서술로 정의하면서도 구술이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재의 문화적인 배경을 파악할 것을 강조하여 구술사는 단순한 구술자의 서술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역사학자 김기석은 “구술 기록에 근거한 역사 기술”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구술사가 단순히 구술 채록이 아니라 그것에 근거한 역사 쓰기 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역사학자 허영란은 구술사를 역사 속에 녹아들이지 못했던 “개인의 기억 또는 경험을 역사화하기 위한 기획”으로 정의한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통용되는 구술사라는 의미에는 “①구술에 기반을 둔 역사 서술 뿐만 아니라 ② 구술의 방법에 의해 생산된 자료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역사학 전공자로서 구술사를 가지고 논문을 쓴 이용기는 “구술사란 구술(자료)을 통해 쓰인 역사를 말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역사학자들은 구술사를 구술 채록이라기보다는 역사 쓰기로 이해하고 있다.

사회학자로 구술사를 연구하는 김귀옥은 “요우(Valerie R. Yow, 1994)는 구술사(Oral History)라는 말을 생애사(life history), 자기보고서(self-report), 개인적 서술(personal narrative), 생애이야기(lifestory), 구술 전기(oral biography), 회상기(memoir), 증언(testament), 심층면접(in-depth-interview)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 구술사는 어떤 사람들의 기억이 구술을 통해

역사적 자료로서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¹⁰⁾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구술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의 기억이 구술을 통해 역사 자료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술 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구술 채록 연구 방법에 대하여는 한국구술사학회의 구술채록매뉴얼¹¹⁾에서 설명이 되어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구술자료의 성격¹²⁾

구술사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된 구술자료는 문헌 기록과는 다른 사료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문어와는 다른 구어 즉 구술이라는 것이다. 구술은 언어적인 행위와 비언어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청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연행적인 성격이 있다. 두 번째로 구술자료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자료라는 것이다. 구술사의 주관성과 개인성은 민족과 국가가 주체가 되는 중앙 중심적, 민족사 연구에서 가려지는 개인과 집단들의 경험을 드러낼 수 있다. 세 번째로 구술자료는 이야기다. 따라서 구술의 내용뿐만 아니라 구술에서 드러나는 서술의 형식도 연구의 대상이다. 네 번째는 구술사는 구술자와 면담자 간의 공동작업이며 그 결과물에 대해서 구술자와 면담자는 공동저자가 된다. 다섯 번째로 구술자료는 문헌기록과 다른 종류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데, 공식 역사나 문헌에서는 틀린 진술이지만 구술자에게는 진실인 진술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구술사 인터뷰

모든 구술사 인터뷰는 면담자와 구술자 사이에 질문과 대답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술사 인터뷰는 국민의례와 같이 일상이 멈추어지고 면담자가 구술자와 함께 구술자의 과거로 여행을 하는 것이며 인터뷰가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구술사 인터뷰는 질적 연구의 하나이기 때문에 연구자(면담자)가 연구의 도구가 되어 연구참여자(구술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따라서 면담자와 구술자 사이에 라포(rapport) 형성이 중요하다. 이때 라포는 구술자가 편안하게 자신의 내적 감정까지도 말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면담자는 구술자에게 신뢰감을 주어야만 구술자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3. 구술자 선정

1) 구술자의 자격 조건

구술자 선정은 면담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따라서 결정된다.

2) 구술자 선정 방식

구술자 선정 방식은 위에서 언급한 구술자 자격 조건을 만들어서 그에 맞는 구술자를 섭외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4. 예비조사

1) 문헌조사

면담자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 도서관이나 기록관 혹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하여 충분한 배경지식을 가지면 인터뷰 질문을 만들 때도 도움이 된다.

2) 예비 면담

구술자가 섭외가 되면 인터뷰를 정식으로 하기 전에 구술자와 예비 면담을 진행한다.

〈구술 동의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정보 수집 동의서〉 와 〈구술자료 공개 및 이용 동의서〉 에 대해서 설명한다.

3) 예비질문지 작성

인터뷰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기획이 필요하고 다루고 싶은 주제들을 연대기적 구조로 논리적으로 정리한다. 면담자가 인터뷰 계획을 잘 준비하면 질문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10) 김귀옥, 한국구술사연구 현황, 쟁점과 과제, 사회와역사 71집, 2006, pp.315-316.

11) 한국구술사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인용
<http://www.koha2009.or.kr/notice/view.php?idx=173&page=1&search=&find=>

5. 인터뷰 수행

1) 인터뷰의 시작

동영상 촬영과 사진 촬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술 동의서>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정보 수집 동의서> 에 서명을 받는다.

2) 인터뷰 진행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흐르고 구술자가 편안하게 자신의 경험과 내면세계를 펼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

3) 인터뷰 질문

인터뷰 질문은 짧고 명확해야 한다.

4) 인터뷰 마무리

인터뷰가 끝나면 다음번 인터뷰 날짜를 잡는다. 매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인터뷰 내용을 검토해서 질문이 안된 내용이 있나를 확인하여 다음 인터뷰 질문을 준비한다.

마지막 인터뷰 전에 구술자 소장 관련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터뷰 주제와 관련된 소장물들을 인터뷰 전에 준비해 줄 것을 구술자에게 부탁한다. 구술자 소장 관련 자료는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는다. 마지막 인터뷰가 끝나면 <구술 자료 공개 및 이용 동의서(공개)> 혹은 <구술 자료 공개 및 이용 동의서(비공개)> 그리고 <구술 자료 외부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에 구술자의 서명을 받는다. 동의를 받는 목적은 구술 기록물의 공개 및 활용을 위해 저작권의 귀속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확정하고, 구술 기록물의 보호 및 구술자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동의 내용은 기록물 활용을 위해 구술자 저작권 위임·양도 및 비공개 등 제한 사항과 영구 보존 기록물에 대한 설명이다. 구술자가 특정 구술 내용을 비공개로 설정하고자 하면 <구술자료 비공개 내역> 을 작성한다

6. 인터뷰 정리

1) 녹취록 작성

녹취는 면담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녹취자가 작성하게 하며 면담자는 반드시 검독을 한다.

3. 윤창열교수 자문자료 정리

1) 자기 소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76학번으로, 1982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조교를 역임하고, 1985년 대전대학교 전임강사 만 27세에 시작하여, 대전대학교에서 원전, 의사학, 의철학, 의역학, 의학한문 등 교과목 강의하였다.

2) 원전의사학 전공 동기

구술자는 운명적으로 한문을 좋아하여 한의과대학 입학때부터 임상을 할 생각은 없이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학부 시절부터 한문을 좋아하여 고전독서회라는 동아리에서 한문공부 시작하여, 방학동안에 서당을 다니고, 민족문화추진회 등에서 사서 통감 등 다양한 한문공부를 하였고, 군 면제를 받아 자연스럽게 원전의사학교실에서 조교로 활동하여 원전의사학을 연구하게 되었다.

3) 원전학 관련 연구 업적

대학에서 원전과목과 의철학 의역학 등을 강의하였고, 박사학위논문이 『간지와 운기에 관한 연구』로 오운육기, 십간십이지, 음양오행, 우주변화의 원리 등을 연구하였고, 석사 80여명, 박사 51명을 배출하여 후학 양성에 공헌하였다.

내경과 난경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였고, 그 결과물로 『난경연구집성』을 저술하였다.

기타 한의학연구원과 협업으로 『소문입식운기론 오』, 『향약집성방』, 『난경』, 『영추』, 『수세보원』, 『유경』 등을 번역하였다.

4) 한의과대학장으로서의 업적이나 특이사항

2003-2004년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을 지내면서 전국고등학생 대상 한문경시대회를 열어 고교생들이 한문공부하는 분위기 조성하는데 일조하였다.

한의과대학 구성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12) 윤택림. 『역사와 기록연구를 위한 구술사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2019. p.81.

다양한 연수 및 학생 및 동문들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하였다.

해의 자매대학 결연 및 교환교수 교환학생제도를 만들어 교수님들이 교환교수로 중국을 방문하게 연구하게 하였고, 학생들은 교환학생으로 1년동안 호북중의학원, 상해중의학원, 천진중의학원에서 수학하는 제도를 만들어, 학생들의 입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5) 대한한의학원전학회 회장으로서의 업적

우선 대한한의학원전학회 회칙을 정비하여 그 당시에 국제이사를 신설하여 국제 교류에 노력하였고, 평생회원 제도 신설하여 학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원전학 공통교재를 제작하여 원전학교육의 표준화를 시도하였는데, 학회의 많은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원전학에 이에 다음 회장들이 『의학한문』 공통교재, 『조본 황제내경 소문』 등을 편찬하게 되었다.

6) 교수로서의 업적

- 논문 350여편
- 중국 의학유적답사

1차 1999년 호북중의학대학 학술대회 참가 - 무당산

2차 2001년 상해중의학대학, 소주, 황산, 절강성의 금화, 의오시의 주단계 능원, 소흥, 항주

3차 2002년 장가계 관광 - 북경 주위 탐방 임구시 편작의 사당 약왕묘, 하간시 유하간의 사당인 유아진, 약도인 안국시의 약왕묘, 이동원의 고향인 정정현, 장원소의 고향인 하북성 역현

4차 2003년 호북성 남양시 - 호북성박물관, 이시진 고향 기춘현, 소동과 적벽부 황석시, 신농씨 유적 수주시, 양곤시 용중, 장중경 고향 남양 의성사

5차 2004년 섬서성 감숙성 - 황능현 황제릉 현원묘, 요현 약왕산, 보개시 염제릉 염제사, 천수시 복희묘, 가옥관 장성박물관, 돈황 명사산 월아천 막고굴, 서안 화칭지 진시황 병마용

1차에서 5차까지는 『윤창열 김용진 교수의 중국

역사유적의학유적 탐방기』로 출간

6차 복건성 주자의 고향, 진수원의 고향인 복주시의 장락현, 천수시 소송의 고향, 강서성 아고사, 유창의 묘 아파트 개발중, 여산

7차 청해성 티벳

7) 후학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 한문 수업을 함 - 한문을 기본으로 원서를 읽고, 한의학의 그 원리 탐구 함

요즘 학생 - 한문공부 싫어함 - 의사들은 영어 잘함, 한의대 학생들은 한문 등한시 함 - 한문으로 된 원서 읽을 능력이 안됨.

안병국 교수님 -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한문을 모르면 전공문맹자이다.

한의학의 모든 것은 의서 속에 있으므로 한문을 기반으로 하는 한의학 원서를 읽어야 함.

한의학적 지식의 바탕위에 서양의 지식을 결합하여 미래 한의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 한의학과 대체의학의 다른 점은 한의학적 원리에 있다. - 한의학의 기본 원리가 음양오행이니 열심히 공부하자, 아울러 중국어 열심히 하여 국제 교류 잘하자.

8) 기타 - 학회 창립 과정

대한한의학원전학회 설립과정.

1983년 한의학회에 홍원식교수님의 지시로 그 당시 한의사협회장을 역임하고 박사과정원생인 이금준원장님에게 지시하여 대한원전의학회가 창립됨

1987년 대한원전의학회지 창간

1999년 대한한의학원전학회와 한국의학회로 분리

이상이 윤창열교수의 자문을 통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여기에 강정수교수와 오재근교수의 증언을 참고하면 몇 가지 추가되는 사항이 있다.

국제교류분야에서 천진중의학대학에 겨울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한의과대학 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단기연수를 실시하였고, 지산한의약상의 발전기금을 모집하여 2회째 배원식 원장님께 시상하였고, 명맥

만 유지되던 지산국제학술대회를 거행하여 국제교류에 힘을 썼고, 처음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학생과 학부모를 모시고 오찬을 하면서 격려하여 국제교류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키는데 공헌하였다.

한문공부는 교수가 되어서도 김용진교수와 김정규조교선생, 김선호조교선생과 김수장학생 등과 함께 모은 이석희 선생님께서 주역을 배우고, 이지풍 선생님께서 시경을 공부하여, 한문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공헌하였다.

후학양성으로 대학원생을 많이 배출하였는데, 석사학위로는 1988년에 김수열 김용진을 시작으로 원전외사학, 원전학, 진단학 전공 총 76명을 지도하여 강현호, 고선립, 고영상, 고정훈, 권경인, 권대순, 김근영, 김대식, 김미선, 김병국, 김선호, 김수열, 김용진, 김윤현, 김정규, 김정훈, 김주철, 김준태, 김창건, 김항태, 김형주, 김형태, 김희재, 도영민, 류제구, 박근정, 박기태, 박병선, 박재정, 배성룡, 백정의, 성지영, 성호준, 송미령, 송현주, 신현규, 안규범, 오은영, 오창경, 왕학갑, 유재경, 유희정, 윤영민, 윤한용, 이덕민, 이동은, 이만희, 이병서, 이병직, 이영원, , 이용석, 이종호, 이필우, 이화, 이희식, 이흥구, 장은영, 정윤철, 정일형, 정치욱, 정해명, 제강우, 지명순, 천병태, 최종필, 최진혁, 최태희, 최형록, 최환수, 팽종기, 편수범, 하성룡, 한경훈, 한국, 현고은, 현동철 총 76명의 한의학석사를 배출하였다.

박사사학위로는 1994년에 김용진 이남구를 시작으로 원전외사학, 원전학, 진단학 전공 총 51명을 지도하여, 김근, 김근영, 김대식, 김미선, 김선호, 김수열, 김연태, 김용진, 김정규, 김창건, 김춘배, 김형주, 김형태, 류제구, 박기태, 박재정, 박종기, 성호준, 송미령, 신현규, 안규범, 오은영, 오재근, 오창영, 왕학갑, 유영준, 유재경, 유한철, 유희정, 윤영흠, 이남구, 이병서, 이병직, 이송, 이용석, 이인수, 이재수, 이화, 이흥구, 장은영, 전윤주, 정윤철, 정치욱, 조학준, 지명순, 최태희, 최형록, 최환수, 편수범, 홍진임, 한국 총 51명의 한의학박사를 배출하였다.

아래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경력사항 및 저역서, 학술논문을 정리하였다.

표 1 경력사항

No.	근무년월	근무처	직위
1	1991.10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부교수 - 교수
2	2004.01 ~ 2006.01	대한 한의학원전학회	회장
3	2003.03 ~ 2005.02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장
4	2002.12 ~ 2003.04	한국주역학회	이사
5	2000.01 ~ 2003.04	대한 한의학원전학회	수석부회장 편집위원장
6	1999.03 ~ 1999.09	대전대학교	교과과정편찬위원
7	1998.01 ~ 2000.01	대한 한의학원전학회	부회장
8	1996.04 ~ 1996.12	한국한의학연구소	비상임위원
9	1995.04 ~ 1996.04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부설 노인대학	강사
10	1994.04 ~ 1998.01	대한원전외사학회	총무
11	1993.01 ~ 1994.02	중국 요령성 요령중의학원	연구교수
12	1991.11 ~ 1993.02	대전대학교	예산결산자문위원
13	1991.09 ~ 1993.08	대전대학교 사회교육원 운영위원회	위원
14	1991.08 ~ 1992.07	대전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15	1991.04 ~ 1993.03	대전대학교 교과과정 운영위원회	위원
16	1990.03 ~ 1990.12	대전대학교 개교 1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학생분과위원
17	1989.04 ~ 1991.04	대전대학교	기획위원
18	1989.03 ~ 1993.02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학과장겸 한의학과장
19	1989.03 ~ 1991.02	대전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학과장
20	1987.10 ~ 1991.09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조교수
21	1985.03 ~ 1987.09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전임강사
22	1982.03 ~ 1985.02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조교

표 2 저역서

No	서명	출판년도	출판사
1	醫學漢文	1987	성보사

2	懸吐完譯 柯氏傷寒論	1999	주민출판사
3	懸吐完譯 四診心法要訣	2001	주민출판사
4	詳解醫學漢文	2001	주민출판사
5	增補中國醫學史	2001	일중사
6	懸吐完譯 本草問答	2001	주민출판사
7	難經研究集成 한의학교전연구소 연구총서(1)	2002	주민출판사
8	懸吐完譯 黃帝內經素問王氷注(中)	2003	주민출판사
9	難經本義	2003	주민출판사
10	懸吐完譯 黃帝內經素問王氷注(上)	2003	주민출판사
11	懸吐完譯 黃帝內經素問 王氷注(下)	2004	주민출판사
12	북한의 고려의학 연구	2004	주민출판사
13	신편중국의학사(新編中國醫學史)	2004	주민출판사
14	醫易學	2007	주민출판사
15	新編醫學漢文	2008	주민출판사
16	(懸吐完譯) 內徑知要	2009	주민출판사
17	(윤창열·김용진 교수의) 중국 역사유적 의학유적 탐방기	2010	주민출판사
18	(선후천 변화의 질서를 밝히는) 하도낙서와 삼역괘도	2010	상생출판
19	醫哲學	2011	주민출판사

5	소 논문집 대전대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7.07	中國·北京中醫藥大學에 관한 研究
6	대전대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7.07	티벳의학에 대한 고찰(3)
7	대전대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7.07	《素問·至眞要大論》에 대한 研究(1)
8	대전대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7.07	노인치매의 治療에 관한 韓醫學적 研究
9	대전대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7.07	日本 漢方醫學에서 古方派醫學의 生涯에 대한 번역
10	대전대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7.07	黃庭內景經에 관한 研究
11	대전대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7.07	陰陽의 語源과 陰陽論의 起源에 관한 考察
12	대전대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7.07	六氣의 標本中氣와 疾病發生의 機轉에 관한 研究
13	대전대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7.07	舌診의 歷史에 관한 研究(1)
14	대전대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7.07	醫學上에 나타난 天人相應
15	대전대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7.07	張介賓의 醫易思想에 관한 小考
16	대전대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7.07	《黃帝八十一難經》 중 脈診條에 관한 研究(2)
17	대전대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7.07	《黃帝八十一難經》 중 疾病條에 관한 研究(3)
18	대전대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7.07	日本醫學에서 古方派에 대한 考察
19	대전대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8.07	韓國의 韓醫科大學, 中醫藥大學 留學生 및 中醫藥大學 內國人的 教育課程에 대한 比較 研究
20	대전대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8.07	《素問·刺法論》에 대한 研究
21	대전대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8.07	소문 육원정기대론중 제1장에 대한 연구(2)
22	대전대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8.07	소문 육원정기대론 제3장에 대한 연구(II)
23	대전대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8.07	오운기행 주세지기의 상수와 약식소의에 대한 연구

표 3 학술논문

번호	학술지	계재 년도	논문제목
1	경희대 한의과대학 논문집	1984. 12	金元時代醫學의 學術的特徵.
2	구암학보	1996. 02	《東醫寶鑑》의 편찬동기와 특징에 대한 考察
3	대전대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7. 07	本草綱目 人蔘條 懸吐 翻譯
4	대전대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7. 07	《素問·氣交變大論》에 대한 研究

24	대전대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1998. 07	황제내경의 성서시대에 관한 고찰
25	대전대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1998. 07	소문 지진요대론에 대한 연구(3)
26	대전대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1998. 07	장산뢰의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2)
27	대전대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1998. 07	河圖 洛書와 先后天八卦의 配合에 관한 考察
28	대전대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1998. 07	《素問·六元正紀大論》 중 第1章에 대한 研究(1)
29	대전대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1998. 07	《素問·五運行大論》 에 대한 研究(1)
30	대전대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1998. 07	《素問·六微旨大論》 에 대한 研究(1)
31	대전대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1998. 07	《黃帝八十一難經》 의 脈診에 관한 研究(2)
32	대전대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1998. 07	《素問·氣交變大論》 에 대한 研究(2)
33	대전대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1998. 07	《素問·至真要大論》 에 대한 研究(2)
34	대전대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1992. 03	三清理論의 形成過程에 關한 文獻의 考察
35	대전대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1992. 03	韓醫學과 道敎의 關係에 대한 文獻의 考察
36	대전대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1993. 03	尹草窓의 生涯와 草窓訣의 書誌學的 意義에 對한 小考
37	대전대대학 원 논문집	1999. 02	趙獻可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38	대전대대학 원 논문집	2000. 02	四診心法要訣의 顔面部望診에 關한 考察
39	대전대학 논문집	1985. 12	干支와 運氣에 관한 研究
40	대전대학교 논문집	1986. 06	五運의 三五分紀에 관한 考察.
41	대전대학교 논문집	1987. 07	南北政에 관한 考察(II)
42	대전대학교 동양문화연 구소 논문집	1987. 07	運과 氣의 相合에 관한 고찰.
43	대전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2014. 02	김홍경의 기경팔맥관에 관한 연구 - 음양유교맥과 사상체질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44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	2003. 08	中國 古代에서 漢代까지 診斷學史에 關한 研究

45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2003. 08	明代의 診斷學 發展史에 關한 研究
46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2007. 12	중풍과 유중풍의 개념 및 명칭의 변천에 대하여
47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2007. 12	황제내경의 치료이법에 관한 연구
48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2007. 12	유의학의 사상적 특성
49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2007. 12	동의보감 단방에 관한 연구
50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2007. 12	한방시간의학의 시대적 발전에 관한 고찰
51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2004. 12	『금궤요략』의 婦人雜病에 관한 研究
52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2004. 12	『금궤요략』에서의 黃疸에 관한 研究
53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2004. 12	『금궤요략』의 婦人妊娠病에 대한 考察
54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2005. 12	『금궤요략』 중 肉類飲食 攝取的 禁忌에 관한 研究
55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2005. 12	人蔘養胃湯에 관한 文獻的 考察
56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2005. 12	『금궤요략』의 四肢病에 대한 研究
57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2006. 12	『難經匯注箋正』中 臟腑生理에 대한 研究
58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2006. 12	『難經匯注箋正』中 疾病에 대한 研究
59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2006. 12	『難經匯注箋正』中 脈診에 관한 研究
60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2006. 12	『黃帝素問大要·題誌』에 대한 研究
61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2006. 12	文獻에 나타난 肺風粉刺에 대한 考察
62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 소 논문집	2006. 12	『難經匯注箋正』中 俞穴에 대한 研究
63	대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2003. 07	張錫純의 大氣論과 氣化論에 관한 研究
64	대전대한의	1999.	老人의 生理心理에 대한

	학연구소 논문집	02	考察
65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9. 02	漢代以前の 診斷學 專門書籍에 관한 考察
66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9. 02	素問·至眞要大論에 대한 연구(4)
67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9. 02	內經의 歷代註釋家와 註釋書에 관한 研究
68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9. 08	伏羲八卦圖에 관한 研究
69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9. 09	晉·隋·唐代의 診斷學 專門書籍에 관한 考察
70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9. 09	《素問·至眞要大論》에 대한 研究(5)
71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2000. 02	《素問·至眞要大論》에 관한 研究(6)
72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2000. 08	《素問·至眞要大論》에 관한 研究(8)
73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2000. 08	邵同珍의 《醫易一理》에 關한 考察
74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2001. 02	老人保健에 대한 研究
75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2001. 02	運氣學과 四象體質醫學을 통한 人間體質에 대한 考察
76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2002. 08	金櫃要略·百合病에 대한 考察
77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2002. 08	金櫃要略에서의 虐病에 대한 考察(상)
78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4. 08	傷寒六經에 대한 諸家說
79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4. 08	陳士鐸의 生涯와 醫學思想
80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5. 02	《難經》중 經絡條에 대한 연구(1)
81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5. 02	《難經》중 疾病條에 대한 연구(1)
82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5. 02	唐宗海의 醫學思想
83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5. 08	티벳의학에 대한 고찰(1)

84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5. 08	《難經》중 俞穴篇에 관한 연구(1)
85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5. 08	《難經》중 診脈條에 관한 연구(1)
86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5. 08	《難經》중 脈學條에 관한 연구(1)
87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5. 08	《難經》중 臟腑生理篇에 대한 研究(2)
88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5. 08	《難經》중 鍼灸治療篇에 대한 研究(1)
89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5. 08	《難經》중 疾病條에 관한 연구(2)
90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6. 02	三陰三陽에 관한 研究
91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6. 02	《難經》중 俞穴篇에 관한 연구(2)
92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6. 02	《難經》중 脈學條에 관한 연구(2)
93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6. 02	十干과 十二支에 대한 考察(2)
94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6. 08	六十甲子와 陰陽五行에 관한 考察
95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6. 08	黃庭經에 관한 研究
96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6. 08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관한 考察
97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6. 08	中醫診斷學의 史的 考察(1)
98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6. 08	《黃帝八十一難經》중 俞血條에 관한 研究(3)
99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6. 08	黃帝八十一難經 중 脈學條에 관한 研究(3)
100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6. 08	《黃帝八十一難經》중 疾病部分에 관한 研究
101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8. 02	북한의 東醫診斷에 대한 조사 및 고찰
102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9. 02	孫一奎의 生涯와 學術思想에 관한 연구
103	대전대한의 학연구소 논문집	1999. 02	素問·六元正紀大論 중 第一章에 대한 연구(3)

	문집		
104	대전대한의 학연구소논문 문집	1999. 02	張山雷의 師承關係에 대한 小考
105	대전대한의 학연구소논문 문집	1999. 02	한의학 방법론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106	대전한의학 연구소논문 문집	1996. 08	歷代註釋序文을 통한 黃帝八十一難經의 研究
107	대한 원전의사학 회지	1998. 07	素問運氣七篇 및 遺編의 眞僞에 관한 考察
108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88. 12	曆의 成立에 관한 考察.
109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0. 12	張元素의 生涯와 醫學思想
110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0. 12	喻昌의 生涯와 醫學思想
111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1. 02	方藥合論에 관한 研究
112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1. 12	朱丹溪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113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5. 02	의학윤리에 대한 문헌적 고찰
114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5. 02	養生에 관한 文獻的 考察
115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5. 02	《難經》중 臟腑生理篇에 관한 研究(1)
116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5. 02	黃元御의 生涯와 醫學思想
117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5. 02	河圖와 洛書에 나타난 陰陽五行에 관한 研究
118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7. 07	運氣學說의 贊反論爭에 관한 歷史的 考察
119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7. 07	소문운기칠편 및 유편의 진위에 관한 고찰
120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7. 07	티벳의학에 대한 고찰(2)
121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7. 07	中國中醫研究院에 대한 研究
122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7. 07	《黃帝八十一難經》의 時代別 註釋家 및 그 註釋書에 관한 研究(1)
123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7. 11	黃庭經研究(4)
124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8. 04	張山雷의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125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8. 04	티벳의학에 대한 연구
126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8. 04	《素問·天元紀大論》에 관한 研究
127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8. 07	《素問·六元正紀大論》第3 章에 대한 研究(2)
128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8. 11	亢害承制論의 發展過程과 意味에 대한 諸家說의 研究
129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9. 01	運氣學說의 起源에 대한 研究
130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9. 1	八卦의 人體配屬과 診斷學的 運用
131	대한원전의	1999.	老人病의 辨證論治原則에

	사학회지	1	대한 研究
132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9. 1	臟腑와 八卦配合에 관한 研究
133	대한원전의 사학회지	1999. 1	納甲納支에 관한 研究
134	대한한의진 단학회지	1997. 07	《黃帝八十一難經》중 脈學條에 관한 研究 (10,13,14,15難을 中心으로)
135	대한한의진 단학회지	1997. 07	舌診의 歷史에 관한 研究(2)
136	대한한의진 단학회지	2000. 07	腹診의 發生過程과 方法에 關한 文獻的 研究
137	대한한의진 단학회지	2001. 07	明代 診斷學 發展史에 관한 研究
138	대한한의진 단학회지	2001. 07	赤外線 體熱 影像을 이용한 顔面望診法의 有用性 研究
139	대한한의진 단학회지	2001. 07	生血液檢査와 氣血津液辨證의 相關性에 대한 研究
140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00. 06	人身의 太極에 관한 考察
141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00. 12	文王八卦에 관한 研究
142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01. 1	張錫純의 大氣論에 관한 考察
143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06. 02	남녀의 차이에 근거한 남녀 형상의 의학적 운용에 대한 연구
144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07. 11	허숙미의 생애와 저서에 관한 연구
145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07. 11	장식순의 심의 생리에 대한 찬발
146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07. 11	王淸任의 瘀血論治思想에 관한 연구
147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08. 08	『本草綱目』에 나타난 『神農本草經』과 南北朝 以前の 本草書에 대한 研究
148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08. 08	火生土의 概念에서 本心과 消化의 相互關係 考察
149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08. 11	水穀의 運化와 배출 - 『黃帝內?』을 중심으로 -
150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08. 11	寸口脈法의 寸關尺 臟腑配屬에 대한 研究
151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09. 02	不眠과 心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
152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09. 05	秦漢, 三國, 晉 왕조의 王名과 避諱 사례에 관한 고찰
153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09. 05	避諱의 유래와 종류, 방법에 관한 고찰
154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09. 08	『本草綱目』이 『廣濟秘?』에 미친 영향 분석 -? 鄉藥單方治驗?을 중심으로 -
155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09. 08	『本草經校正』(필사본)의 서지학적 고찰 및 내용 분석
156	대한한의학	2010.	《東醫寶鑑》 單味 處方 중

	원전학회지	01	食材料活用に 관한 연구
157	대한한의학회지	2010.05	朱?의生涯와 저서에 관한 연구
158	대한한의학회지	2010.09	『脈經』? 『脈訣』? 『脈訣刊誤』의 비교를 통한 『脈訣』의 脈象에 대한 연구
159	대한한의학회지	2010.11	六味地黄丸의 制方原則 및 配合原理에 관한 연구
160	대한한의학회지	2011.03	五?穴의 流走方向에 관한 연구
161	대한한의학회지	2011.03	五?穴의 五行配合에 관한 연구
162	대한한의학회지	2011.05	조선 의서 중의 藥性歌에 대한 연구 - 『제중신편』, 『의중손익』을 중심으로 -
163	대한한의학회지	2011.11	三焦有形說에 관한 연구
164	대한한의학회지	2012.11	?內經?에 나타난 三焦有形의 根據 및 三焦의 實體
165	대한한의학회지	2013.05	三焦有形으로 살펴본 三焦의 機能, 病證 및 臟腑配合
166	대한한의학회지	2013.08	西源學派 醫家에 관한 연구
167	대한한의학회지	2014.02	朱丹溪의 相火論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火에 대한 고찰
168	대한한의학회지	2014.05	何夢瑤의 醫易思想에 관한 연구
169	대한한의학회지	2014.08	『遵生八?』의 ‘論泉水’에 관한 연구
170	대한한의학회지	2014.08	朱丹溪의 四傷(氣血痰鬱)學說에 관한 연구 - 『格致餘論』과 『金?鉤玄』을 중심으로 -
171	대한한의학회지	2014.08	『遵生八?』의 ‘粥?類’에 관한 연구 - 『老老恒言』과 관련하여 -
172	대한한의학회지	2014.11	『遵生八?』의 ‘飲饌服食?’의 구성과 내용에 관한 연구
173	대한한의학회지	2014.11	『格致餘論』에 나타난 養生思想에 관한 연구
174	대한한의학회지	2016.02	甲己爲南政 餘爲北政說에 관한 연구
175	대한한의학회지	2016.05	克害承制論에 대한 諸家說 연구
176	대한한의학회지	2016.08	平氣年에 관한 연구
177	대한한의학회지	2016.11	素問六氣玄珠密語에 관한 연구
178	대한한의학회지	2017.05	『草窓訣』中「用藥勸」에 관한 연구
179	대한한의학회지	2017.08	尹東里의 家系와 『草窓訣』中「運氣衍論」에 관한 연구

180	대한한의학회지	2017.11	干支의 意義 및 說文解字의 十干에 관한 연구
181	대한한의학회지	2017.11	韓國의 運氣學에 관한 연구
182	대한한의학회지	2018.02	運氣의 勝復에 관한 연구
183	대한한의학회지	2018.05	일본의 運氣學에 관한 연구
184	대한한의학회지	2018.05	清代의 運氣學에 관한 연구
185	대한한의학회지	2018.05	明代의 運氣學에 관한 연구
186	대한한의학회지	2019.02	五運六氣醫學寶鑑의 著者 趙元熙에 관한 연구
187	대한한의학회지	2019.05	十干의 陰陽, 五行, 相沖, 臟腑配合에 관한 연구
188	대한한의학회지	2019.11	人迎寸口比較脈診에 관한 연구
189	대한한의학회지	2020.02	數理를 통해 살펴본 十干과 十二支의 종합적 개념
190	대한한의학회지	2003.02	장개빈(張介賓)의 의역(醫易)사상
191	대한한의학회지	2003.08	금화교역(金火交易)에 관한 고찰
192	대한한의학회지	2004.05	李中樞의 學術思想에 관한 연구
193	대한한의학회지	2004.05	심금오의 婦科玉尺에 대한 연구
194	대한한의학회지	2004.05	陳士鐸의 生涯와 著述에 대한 연구
195	대한한의학회지	2004.05	陳士鐸의 陰陽五行說에 대한 闡發
196	대한한의학회지	2004.08	薛己의 生涯와 醫學著作에 관한 연구
197	대한한의학회지	2004.08	李中樞 學術思想의 特徵에 관한 연구
198	대한한의학회지	2004.11	樟南의 사상적 배경과 의학관
199	대한한의학회지	2005.02	陳士鐸의 臟腑五行病理와 雜病五行病理
200	대한한의학회지	2005.02	장남(樟南)의 의역학(醫易學)의 생명사상에 관한 연구
201	대한한의학회지	2005.02	陳士鐸의 現存醫書 八種序文에 관한 연구
202	대한한의학회지	2005.05	薛己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관한 연구
203	대한한의학회지	2005.05	『黃帝內經』에서 肝의 發生과 生理에 대한 考察
204	대한한의학회지	2005.05	張子和의 生涯 및 刺血理論에 관한 연구
205	대한한의학회지	2005.05	西藏醫學에 나타난 診斷과 治療에 관한 연구
206	대한한의학회지	2005.05	心腎의 相互關係에 대한 東西醫學의 연구
207	대한한의학회지	2005.08	腎主液에 관한 연구
208	대한한의학회지	2005.08	陳士鐸 命門說의 特徵에 대한 연구
209	대한한의학회지	2005.08	『東醫寶鑑』의 目次에 대한 연구

210	대한한의학회지	2005.08	薛己의 外科醫籍과 그 內容에 관한 研究
211	대한한의학회지	2005.11	『金櫃要略』 중 野菜와 穀食의 禁忌에 관한 研究
212	대한한의학회지	2005.11	太陽人 해역명과 營養缺乏性 疾患의 相關性 研究
213	대한한의학회지	2006.05	金元四大家의 鍼灸治療에 대한 研究
214	대한한의학회지	2006.08	張子和의 刺血法이 後世醫學에 미친 影響
215	대한한의학회지	2006.11	周學海의 생애에 관한 研究
216	대한한의학회지	2006.11	음양오행론의 발생과 그 응용
217	대한한의학회지	2006.11	張介賓의 六十四卦 方圓圖에 대한 闡發
218	대한한의학회지	1989.12	歸經論研究.
219	대전대대학원 논문집	1999.02	舌診의 歷史, 原理 및 動向에 관한 研究
220	동양의학	1985.05	南北政에 관한 고찰.
221	東洋醫學	1990.12	難經의 成立과 歷代研究에 관한 考察
222	박사학위논문	1987.12	干支와 運氣에 관한 연구
223	소문학회지	2009.11	石谷 李奎峻의 생애에 관한 연구
224	首屆국제《내경》학술研討會	1998.08	關於三陰三陽的研究
225	의론	1991.11	醫易의 歷代研究에 관한 考察
226	주역연구	1999.12	命門說에 대한 醫易學의 考察
227	지산 국제 동양의학 심포지움 논문집	1996.11	六氣의 標本中氣와 疾病發生機轉에 관한 研究
228	한국의사학회지	1999.12	徐大椿의 生涯와 著書 및 醫學理論에 관한 考察
229	한국의사학회지	2000.1	徐大椿의 醫學思想에 관한 考察
230	한국의사학회지	2000.1	羅天益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231	한국의사학회지	2001.1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조선중기 제왕들의 疾病과 死因研究
232	한의학연구회 소논문집(제3의학회)	2013.02	汪機의 營衛論및 醫案에서 나타난 溫補醫學思想
233	한국의학회지	1997.07	運氣論과 韓醫學
234	혜화의학회지	2017.08	說文解字와 正易原義의 十二支에 관한 研究
235	혜화의학회지	2018.11	十二地支의 陰陽五行 六氣配合 臟腑配合 및 相沖相合에 관한 研究

이외에도 구글학술정보¹³⁾에는 논문과 저서 337 종으로 검색되어 있는데, 구글학술정보에는 天符經의 太一思想 - 세계환단학회지, 이기동 교수의 『환단고기』에 대하여 - 역사와융합 등과 같은 한의학과 관련성이 약한 연구업적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네이버학술정보¹⁴⁾에는 한의학, 대한한의학회지, 혜화의학, 한국의사학회지, 대한한의학회지에 논문과 보고서 324편이 보고되어 있다.

Ⅲ. 맺는 말

교원의 정년퇴직을 맞이하면서 해당 교원의 업적을 정리하는 작업은 해당교원과 학회의 역사를 기록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당 교원의 업적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구술사의 연구방법에 따라 정리하는 방법과 해당 교원의 업적을 조사하여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술사의 연구 방법을 준용하여 해당 교원의 업적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해당교원에게는 구술사에서 처럼 필요한 질문을 미리하는 방식으로 자문을 구하였고, 자문 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이 있는 증언을 들어 보충하거나 수정하였다.

이러한 구술사의 연구 방법도 한의학 교육에 있어서 인문사회의학의 한 교과로도 연구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윤창열교수의 업적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 한의과대학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학과의 발전에 기여함

1985년 3월 1일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만 38년간 근무하였는데, 한의예과장, 한의학과장, 교학과장, 대학원 학과장 등의 보직을 역

13) <https://scholar.google.co.kr/citations?user=SIwyEF8AAAJI>

14) <https://academic.naver.com/search.naver?query=%EC%9C%A4%EC%B0%BD%EC%97%B4&field=0&sort=0&searchType=1&docType=1&category=10635>

임하면서 학과의 기틀을 다졌고, 한의과대학장으로
 서 천진중의약대학과 자매결연을 통해 교환학생 제
 도를 마련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대전대학
 교 한의과대학의 자랑할 만한 전통이 되고 있다. 그
 리고, 자매대학인 천진중의약대학, 상해중의약대학,
 호북중의약대학과의 학술 및 인적교류를 활발하게
 하였다.

2. 학생 교육 및 연구

재직 기간 동안 의학한문, 원전학, 일반한문, 경
 전강독, 의철학, 의역학 등을 강의하면서 황제내경,
 오운육기학 등 기초 한의학 분야의 연구에 매진하였
 고 의철학, 의역학 등은 교재를 편찬하여 이 분야
 연구를 개척하였다. 대학원 교육에 있어서 석사 76
 명, 박사 51명을 배출하였다. 학문 연구에도 매진하
 여 한국연구자정보(KRI)의 자료에 근거하면 235편
 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19권의 번역서와 저서를 출
 판하였다. 연구의 주된 주제는 간지와 운기학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운기에 관한 종합적 연구”라는 연
 구과제를 수행하여 이와 관련된 30여편의 논문을
 작성하였고,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협업으로 『향약집
 성방』, 『난경』, 『영추』, 『수세보원』 등을 번역
 하였고, 현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유경』의
 번역을 진행 중이다.

3. 학회 및 학술 활동

대한한의학회 산하의 대한한의학원전학회에서 총
 무, 수석부회장,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학술지 4회
 발간을 통하여 학술지의 위상을 강화하였고, 학회의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였고, 황제내경 공통교재를
 만들어 원전학교육의 표준화에 기여하였다.

이상의 업적들은 소속된 단체에서 구성원들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구성
 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 신규환. 최근 한국의학사 연구에서 구술사 연
 구의 성과와 한계. 대한의사학회. 의사학. 제22
 권 제2호(통권 44호). 2013. pp. 422-423.
2. 황임경, 김호연. 구술사와 서사의학의 만남,
 그 시론적 탐색. 대한의사학회. 의사학. 제22
 권 제2호(통권 제44호). 2013년. p.382,
 pp.371-374.
3. 박경용. 구술생애사를 통해본 韓藥業士의 한
 약 입문과 전승방식. 부경역사연구소. 지역과
 역사. vol 19. 2006.
4. 박경용. 귀순 침술인 박정규의 생애와 침구제
 도 : 회고록과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남북문
 화예술학회. 남북문화예술연구. 2009년 4호.
5. 박경용. 전통의료 구술자료 집성 1 -대구약령
 시 원로 한의약업인 6인의 의약업과 삶-. 파
 주, 경인문화사. 2011.
6. 박경용. 원로 한의사의 한의학 입문과 지식,
 기술의 전승 - 구술 생애사를 중심으로. 비교
 민속학회. 비교민속학. vol 34. 2007. pp.5-8.
7. 윤택림, 함한희.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
 술사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2006. pp.
 46-50.
8. 김귀옥. 한국구술사연구 현황, 쟁점과 과제.
 사회와역사 71집. 2006. pp.315-316.
9. 윤택림. 『역사와 기록연구를 위한 구술사연구
 방법론』, 서울. 아르케. 2019. p.81.
10.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5%AC%EC%88%A0_%EC%97%AD%EC%82%AC
11. 교수신문(2005년 3월 28일자)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7350>
12. 한국구술사학회 홈페이지
<http://www.koha2009.or.kr/notice/view.php?idx=173&page=1&search=&find=>
13. 한국연구자정보 <https://www.kri.go.kr/kri2>
14. 구글학술검색
<https://scholar.google.co.kr/citations?use>

Reference

r=SIwyEF8AAAAJ&hl=ko&oi=ao

15. 네이버학술정보

[https://academic.naver.com/search.naver
?query=%EC%9C%A4%EC%B0%BD%EC
%97%B4&field=0&sort=0&searchType=1
&docType=1&category=10635](https://academic.naver.com/search.naver?query=%EC%9C%A4%EC%B0%BD%EC%97%B4&field=0&sort=0&searchType=1&docType=1&category=10635)